

# 광주공항 조건 없는 이전 제시 보성 호우 현장 찾아 피해 점검

## 이용섭 '광주혁신위원회' 해산

7개 분과 74개 실천과제 제시 도시철도·어등산 개발 등은 해법 못 내 시장 결단 필요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광주혁신위원회'가 지난 29일 결산 브리핑을 갖고 해산했다. 2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는 한계로 인해 향후 시정 관련 실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간공공의 조건 없는 이전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도시철도 2호선,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광주의 현안은 1일 취임한 이 시장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출범한 광주혁신위원회는 시민권위원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복지·여성위원회, 환경·교통·안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민주·인권·평화위원회 등 7개 분과로 구성해 활동했다. 광주혁신위원회위원장은 전남대총장과 전국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을 지낸 김윤수 대한민국의학술원회원이 맡았다.

최종보고서에는 7개 분과가 연구한 14대 핵심공약 74개 실천과제(255개 세부과제) 등을 망라해 민선 7기 광주시정 현안과 공약실행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일 문인 북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인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함께 태풍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시민권분과위원회는 직원들이 시장과 1:1 대화가 가능하도록 '시장 핫라인' 개설을 비롯 시민불편 온라인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를 운영할 것을,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 빛그린산단과 도시첨단산업단지역을 1단계로 추진해 조기 완료하고, 광주역과 군공항 지역은 2단계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산하에 광주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당장 임명에 광주시장의 의견 청취 조항을 추가해 지역사회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여성분과위원회는 서부권역 특화형 노인건강타운을 건립해 권역별 노인복지인프라 강화

와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 재원 마련 해법을 내놓았다. 환경교통안전분과위원회는 광주천을 아리랑 문화물길로 조성해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 양림동역사마을, 사직공원, 광주공원 탐방거리, 양동시장, 남광주시장 먹거리 투어를 연계한 삼거리(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광주의 핫 플레이스 조성을 제안했다. 대중교통운영공사 설립,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등도 핵심과제로 했다. 도시재생분과위원회는 광주공항 민간공항을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급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것과 현재 재건축·재개발 대상지 전면 재조정 등을 주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

## 김영록 재난 현장서 임기 시작

태풍 상륙 선제적 대비 당부 활력 있는 일자리 경제 등 5대 혁신도정 드라이브 걸 듯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태풍 대비 긴급대책회의로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2일 예정된 취임식도 취소하고 태풍 대비와 도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지사는 임기 첫 날인 1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태풍 '쁘라삐룬' 대비 상황 판단회의를 주재, 태풍 상황을 보고 받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점검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어 보성군 회천면 모원계 저수지 제방 붕괴 현장과 보성읍 센트럴뷰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피고 조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해안가 침수 우려지역 21개소와 산사태·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228개소에 대한 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일에는 예정된 취임식을 생략하고 대신 재난상황실에서 '제7호 태풍 뿌라삐룬 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소집해 태풍 대비태세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태풍을 계기로 재난·재해 대비태세를 가다듬고 꼼꼼한 사전 점검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오후 호우로 인해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유실된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를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격려했다. <전남도 제공>

통해 취약요소를 찾아내 이를 선제적으로 보완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태풍 대응 이후에는 민선7기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시책 마련과 실천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민선7기 전남도정 목표를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슬로건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으로 정했다. 삶의 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려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달라는 도민 염원이 함축됐다.

5대 도정 방침으로는 ▲활력 있는 일자리 경제 ▲오감 만족 문화관광 ▲살고 싶은 농산어촌 ▲감동 주는 맞춤형 복지 ▲소통하는 혁신도정을 제시했다.

도정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다. 김 지사

는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 등 10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협소한 에너지밸리로는 1000개 기업을 수용할 수 없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한전공대까지 유치해 산·학·연이 결합한 '(가칭)에너지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놴다.

인구감소 대책, 전남관광공사 설립, '스마트농업 1번지' 실현 등이 분야별 시책을 어떻게 추진할 지 관심이다. 광주 군사·민간공항의 전남 이전, 흑산공항 건설, 한전공대 유치 경쟁 등 현안과 상생과제도 산적, '김영록호 협력력'이 주목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시민들 열망 품고 광주의 희망 만드는 시간이었다”

### 윤장현 광주시장 이임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민을 위한 사람 존중 생명도시, 더불어 사는 광주'를 기치로 달려온 민선 6기 4년을 마무리하고 지난 29일 이임했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등을 참배하고 시청 앞 기념식수동산에서 기념식수를 한 후,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4년간 광주시정을 위해 함께 뛰어온 공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시장은 이임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한 4년은 광주시민의 뜨거운 열망을 품은 시간이었고, 광주답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메르스의 위기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러낸 광주하계U대회, 광주답게 인간 존엄의 가치를 지켜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업 불모지였던 광주에 4차 미래 산업을 육성할 땅과 예산을 준비한 점, 사회 대통합의 모델로 마련한 '광주형



지난 29일 오전 광주시청 집무실 앞에서 직원들이 윤장현 시장에게 장미꽃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일자리' 등은 공직자들과의 기투합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시정 추진의 아쉬움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력, 나눔과 공유, 관용과 배려, 협치와 자치 등 행정에서부터 시민사회까지 모든 분야에서 가치 중심의 변화를 이끌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낼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으로의 혁신

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끝으로 “광주는 죽음을 이겨낸 특별한 공동체이며, 광주시민은 마땅히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며 “공직자들의 가장 큰 소명은 이런 광주의 낙하고 당당한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며 시정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전남 단체장들 태풍 대비 취임식 취소

### 주민 안전·피해 최소화 상황 점검 비상체제로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이 2일 예정된 취임식을 일제히 취소했다.

광주·전남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적지 않은데다 북상 중인 제7호 태풍 '쁘라삐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단체장들은 대신 태풍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1일 광주·전남지역 27개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저수지 제방이 유실된 보성군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장흥·신안·해남군을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 단체장들이 2일 예정된 취임식을 잇따라 취소했다. 6년 만에 태풍이 광주와 전남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돼 산사태, 축대 붕괴,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 취임준비위원회와 지자체에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민 안전과 피

해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했다”며 초청된 주민들에게 취소 소식을 공지하고 양해를 구했다.

단체장들은 재난대책회의를 주재하거나 임기 첫 월례회의, 취임 선서 등으로 취임을 알리고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 30일 일찌감치 취임식을 취소했다. 김 군수는 이날 당선인 신분임에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김종식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이운행 함평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김산 무안군수 등 전남 서부권 단체장들도 취임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곧바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강인규 나주시장, 이승욱 강진군수, 정중순 장흥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구중근 화순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등 중부권 단체장들은 농경지와 농업

시설물 등을 둘러보는 등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 점검에 나섰다.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등 전남 동부권 단체장들도 취임식을 전면 취소하고 산업단지 시설물과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을 강화했다.

광주 5개 구청장들도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외부인사 초청없이 자체 행사로 축소 진행한다. 임택 동구청장과 김병내 남구청장은 태풍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부서별 대응 태세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기로 했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태풍에 대비하기로 했다. 당초 취임식 대신 노인복지시설 봉사활동을 계획했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재난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계획대로 봉사활동을 한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취임식을 축소,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직원 200여명과 약속 취임식을 연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www.gaok.or.kr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 민선7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 더하기

민선7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만들어갈 희망찬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

오거돈  
부산광역시

권영진  
대구광역시

박남춘  
인천광역시

이용섭  
광주광역시

허태정  
대전광역시

송철호  
울산광역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이재명  
경기도

최문순  
강원도

이시종  
충청북도

양승조  
충청남도

송하진  
전라북도

김영록  
전라남도

이철우  
경상북도

김경수  
경상남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